

(역사연구 원고 2-1)

감리교회 강화구역 선교확장

강화기독교역사연구회 이 은 용

1. 강화 본도 구역

우선 강화중앙교회(당시 잠두교회)를 중심한 본도 동북부지역 선교를 살펴보면, 강화중앙교회가 이미 1904년 이전에 월곶(강화읍 월곶리), 대묘동(강화읍 대산리) 두 곳에 교회를 개척했고 염하건너 김포 통진에도 교회를 개척하였다. 그리고 1910년대에 들어서 선원면에도 교회를 개척하여 선행리(仙杏里)와 창리(倉里)에 기도처가 설립되었고¹⁾ 냉정리(冷井里)에도 기도처가 설립된 바, 이 교회는 1930년대 이웃 금월리(錦月里)에 예배당을 마련하고 선원(仙源)교회로 불리기 시작했다.²⁾

강화 남부지역 선교는 홍의 출신 종순일 가족이 길상으로 내려와 전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길상면 중심부인 온수리에 자리 잡은 종순일은 인근 마을을 다니며 전도하였는데, 제일 먼저 결실 맺은 곳이 ‘피피’와 ‘다로지’였다. ‘피피’는 지금의 길직(吉稷)을 의미하는데, 길직이란 이름 외에 직산(稷山)으로도 불리었다. 길직에서 처음 믿은 사람은 장운백이었으며 1903년에 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피피교회(길직교회)가 창립되었다.³⁾ 그 후 독자적인 예배당을 마련하였으며, 1916년에 이르러 조종렬, 정운백 등 교인들이 헌금하여 예배당을 4칸 증축하였다.⁴⁾ 길직교회는 주일학교가 활발하였는데 <기독신보>는 1925년 5월에 있었던 길직교회 등산예배를 흥미있게 보도하였다.⁵⁾

“경기 강화도 길직교회는 五월 十七일에 주일학생 三十여 명과 학부형 二十여명이 단군(檀君)이 하나님께 제를 드리는 마리산(摩尼山) 제천단(祭天壇)에 가서 예배하고 다시 정수사(淨水寺)를 거쳐서 산을 넘는 해를 짝하여 도라왔더라.”

길직교회는 길상면 북부와 양도면 동부, 불은면 남부 선교의 또 다른 중심이 되었으니, 길직교회로부터 ‘방죽말’ [길촌, 吉村 ; 직하, 稷下], ‘문고개’ [文峴 ; 길정, 吉亭], ‘넙성’(넙城), ‘덕진’(德鎭)으로 북음이 퍼져나가 1910년 전에 각각 교회

1) 창리기도처는 1918년 이전에 개척되었는데, 강화중앙교회에 출석하던 김화성 권사와 김선호 권사가 주동하여 6칸 반짜리 초가집을 사서 수리하여 기도처를 개설했다. 김광국, “자미있고 모범될만한 기도실”, <基督申報>, 1918. 7. 24.

2) <基督教朝鮮監理會要覽>, 1932, p. 106.

3)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총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1992, p. 455.

4) <基督申報>, 1916. 12. 13.

5) <基督申報>, 1925. 6. 3.

가 설립되었던 것이다.

‘피피’와 거의 같은 시기에 ‘다로지’에도 교회가 설립되었다. ‘다로지’는 ‘월오’(月塢), ‘달오지’로도 불리며 지금의 선두리(船頭里)를 말한다. 1904년 무렵 선두리에 살던 장홍무의 사랑방에서 장홍무, 허주현, 이천남 등이 예배를 드린 것이다 ‘다로지교회’(선두교회)가 시작되었다.⁶⁾

2년 후에는 황유부, 염성오 등의 집 뒤편에 7칸짜리 예배당을 마련하였으며, 이 교회도 1916년에 헌금 65원을 모아 예배당을 2칸 증축하였다.⁷⁾ 선두교회 교인들의 신앙도 열성적이었는데 <그리스도회보>가 보도한 1913년 10월에 열린 부흥회 장면이 그것을 증명한다.⁸⁾

“경기도 강화군 달오지교회에서 거월 六일부터 七일까지 부흥회를 열고 목사 김 유순씨가 인도하였는데 밤마다 형제자매 一百 二三十명씩 참여하여 성신의 권능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만히 밧어 눈물을 흘리니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자도 있고 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도 잇서 떠나는 때에 섭섭한 마음으로 서로 헤어졌스니 모든 영광은 주께 돌린다 하였더라”

이곳 선두에서 다시 복음이 길상면 남부쪽으로 확산되었으니, 1907년에 유득일, 유범용 등에 의해 ‘산뒤’(산후, 山後)에 교회가 개척되었고 다시 내려가 장흥리와 감목관에도 교회가 개척되었다. 특히 장흥교회는 개성 출신 최길응과 내리에서 시집 온 김나오미에게 전도받은 조성덕, 한문규, 권경하, 신리브가 등이 초가집 예배당을 마련하여 세운 교회였으며 이곳에서 다시 해안선을 따라 동쪽으로 옮겨 초지 ‘율곡’(栗谷. 밤나무골)에도 1909년 이전에 교회가 개척되었다.⁹⁾ 길상면의 중심지였던 온수리에는 1907년 성공회 교인들과 충돌 사건이 빚어진 후 한동안 감리교회 개척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34년에야 길상면 교인들이 ‘한국감리교 선교 50주년 기념’으로 35평 규모의 벽돌 예배당을 건축하고 온수리교회를 설립하였다. 이에 대한 <감리회보>의 보도다.¹⁰⁾

6)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총람>, 461쪽. 길상면에 처음 복음을 전한 중순일이 길상면 중심인 온수리를 제쳐두고 북쪽의 피피와 남쪽의 다로지에서 먼저 교회를 시작한 이유는 분명치 않다. 다만 중순일이 길상에 온 때가 성공회에서 온수리에 교회와 학교·병원 등을 설립하고 강력한 선교 기지를 구축한 시기였으므로 같은 교회끼리 마찰을 파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7) <基督申報>, 1925. 12. 13.

8) <그리스도회보>, 1913. 11. 24.

9)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총람>, p. 469.

10) <監理會報>, 1934. 11. 10. 같은 내용의 기사가 <基督申報>, 1934. 11. 21. 에도 실려있다. 한편 온수리 출신 초기 교인으로는 은방울 경영하던 유봉진이 대표적이며, 같은 집안의 유경실이 있고 온수리지역 유지로 성공회 교인이었다가 3.1운동 직후 감리교로 교적을 옮긴 김봉진 집안이 있다. 여기에다 3.1운동 이후 길직에서 온수리로 이주한 장홍환, 장명순 등이 합류하여 온수리만으로도 교인수가 크게 늘어 독자적인 교회 설립운동을 벌였는데, 이때 김봉진이 자기 소유 산 5,700평을 교회에 기증하여 교회 기본 재산으로 삼게 하였다. 김봉진은 한말 서울에 유학하여 황성기독교청년회(YMCA) 학원을 졸업(1회)하였고 감리교로 개종한 후에는 전도사로 시무하였다. 김영창 목사(김봉진의 아들)의 증언, 1994. 5. 11.

“江華郡 吉祥面 溫水里는 江華 第二의 大市場이요 數百餘戶의 集團이 있는 重要 地로 學校, 金融組合, 病院, 郵便所 等 各種機關이 具備하나 우리 教會가 없음을 愛惜히 여기더니 一九二四年一月二十日에 吉稷里 禮拜堂에서 趙鍾烈 傳道師의 唱導와 李鎭亨 牧師의 引導下 에 溫水里禮拜堂 建築期成會를 組織하고 義捐金 五百三十圓을 收合하여 禮拜堂基址兼 造林用으로 溫水里 市場 南便山 五千三百坪을 五百三十圓에 買入한 후 十年間을 留案되었다가 一九三四年 一月부터 五十週年紀念事業의 하나로 南區域 一般教友는 完全한 教會 設立되기를 祈願하는 中 張興煥 傳道師의 運動과 朴起千 牧師의 周旋下에 義捐金 二千圓을 收合하여 市場 南麓下에 煉瓦洋制로 三十五坪을 新築하고 十月 二十三日 午前 十一 時에 林鎭國 監理師 主禮로 左記 順序에 依하여 盛大히 奉獻式을 舉行하였다.”

10년 걸려 개척한 교회답게 온수리교회는 강화남구역의 중심 교회로 성장하였다.

한편, 홍의에서 고부를 거쳐 서남쪽으로 이어진 흐름은 하점, 내가, 양도, 화도 4 개 면으로 이루어지는 강화 본도의 서부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였다. 고부와 같은 내가면에는 1904년 ‘정포’(井浦, 현 外浦里)에 정세현의 대지 헌납으로 교회가 개척되었고,¹¹⁾ 1905년 ‘구주머리’ [鳩上里] 에도 ‘장단교사’라 불리는 교인의 전도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 교회가 개척되었다.¹²⁾ 그리고 하점면 ‘망월’(望月)에도 손승용에게 전도받은 김치정, 고태현, 김명심, 노시좌, 노재민 등이 사재를 털어 초가7칸 예배당을 건립하여 ‘1900년’에 교회가 개척되었다.¹³⁾ 다른 지역과 달리 내가 지역 교회들의 개척 상황이 불분명한데, 내가면 최초 교회인 고부에서 파생되었을 가능성, 강화 최초교회인 교산교회에서 파생되었을 가능성 등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아무튼 1910년 이전에 이 지역에 정포(외포), 구상(오상), 망월 등 세 곳에 강력한

11)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총람>, p. 523.

12) 위의 책, 507쪽. ‘구주머리’는 양구(陽鳩)부락을 의미하며 구상리(鳩上里)로 불리기도 했다. 구상리는 오산리(鰲山里, 고장골)와 합하여 ‘오상리’(鰲上里)가 되었다. 따라서 이 교회는 구주머리교회, 구상교회, 오상교회 등 여러 명칭으로 불렸다. 이곳에 교회를 개척한 ‘장단교사’가 누구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구주머리교회 초기 지도자 김제은(金劑殷)이 이 지역 유지로 교회와 함께 집일학교(集一學校)를 설립하였다는 점에서 개척의 동기와 통로를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즉 개화 지식인의 계몽운동 차원에서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경로는 내가면 최초 교회인 고부교회를 통해서이거나, 강화읍교회를 통해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주머리교회가 설립된 1905년은 강화읍에서 이동회가 개종하여 보창학교를 세운 후 각 지방 유지들이 호응하여 보창지교를 설립하며 기독교로 개종할 무렵이다. 따라서 김제은도 이동회에게 영향받아 기독교로 개종하고 학교를 설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江??>에서 집일학교 설립을 언급하면서 “보창지교”(普昌支校)를 언급한 것에서도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江??>, 第十章, 25쪽 ; 박인환, <오상교회역사>(원고, 1994. 4. 5.)

13)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총람>, 498쪽. 이 자료는 망월교회 창설에 대해 ‘손승용 목사’에게 전도받은 김치정, 고태현, 노시좌 등에 의해 1900년 4월 1일에 창설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손승용 전도사가 연안에서 목회하다가 강화읍에 (김우제 전도사 후임으로)부임한 것이 1906년이므로, 망월교회 창설연대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산교회 김인원 장로의 증언(1994. 4. 5.)에 의하면 ‘할아버지 대에 전해 내려오는 바로는 복음이 교산(교향)에서 망월로 전해져 강화에 퍼졌다’고 하여 망월에 복음이 들어온 통로를 교산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리.교통상으로도 교산→망월→내가로 연결되어 망월교회 창립 연도는 1900년 이전으로도 볼 수 있다. MASK.,1906, 24쪽 ; <江華邑蠶頭教會歷史>, p. 2.

교회가 설립되었다.

가시 그 흐름은 남쪽으로 이어져 양도면에서는 1899년 경에 ‘건들’ [乾坪, 현 乾坪里] 에 교회가 설립되었으니 ‘위량교회’로도 불린 교회다. ‘건들’에 살던 정천일은 고부교회에 다니다가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교회를 개척한 것이다.¹⁴⁾ 건평교회는 이웃 삼흥리(三興里)에 ‘흥천(興天)교회’를 개척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강화 6군자’로 꼽히던 김용하, 전병규가 건평에서 신앙 생활을 하다가 1902년에 자기 마을에 교회와 함께 ‘흥천합일학교’를 설립하여 강화의 지식인 사회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¹⁵⁾ 그리고 흥천교회에서 다시 북동쪽으로 연결되어 불은면의 ‘돌성(石成, 현 三成里)과 ‘삼동암(三同岩)에 각각 교회가 개척되었다. 그리고 고부 출신 황양일에 의해 1899년 경 개척된 상도(上道)교회는 ‘조산(造山)교회와 ‘능내(陵內)교회로 나뉘었으며, 이 두 교회는 피뢰(길직)에서 개척된 ‘문고개(문현)교회¹⁶⁾와 함께 양도면 남부지역에 강력한 교회 세력을 구축하였다.

강화 본도 서남단에 위치한 화도면에서는 내리(內里)교회가 제일 먼저 설립되었다.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윤명운(尹明云).윤명삼(尹明三) 형제가 제일 먼저 믿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윤명삼이 강화읍 잠두교회로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1903년에 ‘소루지’ [松崗里] 에 있던 자기 집 사랑방에서 독자적인 집회를 갖게 됨으로써 내리교회가 설립된 것이다.¹⁷⁾ 이어서 불은면 출신으로 내리에 와서 살던 정운화(丁允和)를 비롯하여 전치옥, 김억보, 박희민(박희로), 김민례(윤명삼 부인), 정밀라(박희민 부인), 정귀섭 등 교인들이 늘어나 1907년에는 내리 ‘두곡(杜谷)에다 초가 7칸 예배당을 마련하고 교회를 옮겼다. 그리고 이동휘와 ‘의형제’를 맺었던 윤명삼은 이동휘를 초빙하여 화도 일대를 순회 강연한 후 조산에 심양강습소, 내리에 ‘니산학원(尼山學院) 설립을 주도하였다.¹⁸⁾ 내리교회 교인들의 신앙도 열성적이었는데, 내리 여교인이 길상면 장흥으로 시집가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이 <그리스도 회보>에 실려 있다.¹⁹⁾

14) MAMK., 1900 p. 38. ; 전택부, 앞의 책, p. 25. ; 오지섭, <나의 목회 한평생>, pp. 230-231.

15) 전택부, 위의 책, pp. 93-96. ; 오지섭, 위의 책, p. 321.

16) ‘문고개교회’의 위치도 불명확하다. 문고개는 양도면 도장리를 지나 길정에서 길상면 길직으로 넘어가는 고개인데 행정구역으로는 양도면 길정리에 속한다. 따라서 문고개교회라고 하면 길정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1909년 당시 <강화.교동 연합계삭회 일기책>에 문고개 교인들로 전봉순, 이범일, 유치형, 김정인 등이 언급되는바 길정교회는 자체 연혁에서 1929년 8월에 개척될 때 전동규, 김은영, 전봉순, 박민순, 황은담, 전동규 등이 주도했다고 기록하여 ‘전봉순’에서 일치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문고개교회는 길정교회의 전신이었거나 문고개교회가 1920년대 폐쇄되었다가 1929년에 다시 개척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총람>, 454쪽.

17)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총람>, 457쪽. 윤병삼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윤명운, 윤명삼의 고향은 경기도 화성인데 그의 집안이 대원군과 관련하여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위기에 처했을 때 할머니 손에 이끌려 인천 앞 팔미도에 옮겨졌고, 할머니마저 별세하여 고아가 되었던바, 그곳에서 일하던 강화 목수들에 의해 강화도 하도면 소루지로 옮겨져 양육되었다고 한다. 윤병문(윤명삼의 손자)장로의 증언, 1994. 5. 14

18) <江都?>, 第十二章, p. 27, 28.

19) “김씨의 믿음”, <그리스도회보>, 1912. 2. 29.

“하도면 송강리 사는 김억보씨는 그곳 교회의 입교인이오 十六세된 딸 나오미도 입교인이라. 불피뿔우하고 주일과 삼일 기도회에 한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잘 밋는대 그 부친 억보씨가 마귀의 틈을 타서 외인의게 출가식히는고로 본군 길상면 장흥동 토저곡 사는 외인 조덕득씨 집으로 출가한 잇흔날에 신랑집에서 사당차례를 지내리 한즉 신부 김나오미씨가 대왈 ‘저는 어려셔브터 친뎡에서 예수를 밋음으로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엿삼네다 성경 사도행전 五 장 二十九절에 말삼하시기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을 순종하는 것보다 맛당히 할것이라 하셧스니 저는 사당차례를 지내지 못하겠삼네다’한즉 시부모와 일가 제족이 다 기가 막혀 그만두고 신랑 혼자 사당차례를 지낸 후에 그 신부가 오직 성신의 인도하심으로 밋음에 담력을 내여 삼일 동안을 시부모와 시동생의에 복음의 진리를 전도하매 성신의 감동됨으로 시집 식구와 일가 제족 중 밋기로 작당한 남녀가 三十인에 달하고로 자기 집에다 레배당을 덩하고 작년(1911년) 一월 첫주일부터 레배본 후 오늘날까지 잘되오니 김나오미씨의 굿센 밋음은 모범될만하다 하엿더라”

장흥교회 개척 교인 조성덕, 조춘식, 김나오미 등이 이럼 과정을 거쳐 나타났던 것이다.

다시 내리교회는 같은 화도면 내에서 교회 개척의 중심이 되었으니, 거의 같은 무렵(1904-1906년)에 장곶, 고창, 문산 세 곳에 교회가 개척되었다. 1904년에 남쪽 ‘장곶’(長串, 현 長花里)에서는 윤희일, 김종립, 김인배 등이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장화리에 살고 있던 김종립(金鍾立).김인배(金仁培)가 전도받고 소루지 윤명삼의 집으로 다니며 예배를 드리던 중, 상방리에 살면서 전도인으로 활동하던 윤희일의 지원을 받아 장화리에 6칸 초가 예배당을 마련하여 교회를 가척한 것이다.²⁰⁾ 1905년 무렵 내리 동쪽 ‘곶창메’ [串倉山], 지금의 고창(高倉)에서는 김성권(金性權), 김양권(金陽權)이 먼저 믿고 내리(소루지) 윤명삼의 집 사랑에서 열리던 집회에 참석하다가, 고창 부락 김순길의 집에서 교인 8명이 별도 집회를 가지면서 교회가 개척되었다. 사촌간인 김양권, 김성권을 비롯하여 김학권(金鶴權), 김돈권(金惇權), 김순권(金枸權), 김진권(金進權) 등 김씨 집안 형제들과 주성노 등이 창설 당시 교인들이었으며 1908년에 ‘김씨 동산’에 별도 예배당을 건축하였다.²¹⁾ 특히 윤명삼과 가까이 지냈던 김성권, 김양권은 강화 유학자 민두현(閔斗鉉), 오필상(吳泌相)에게

20)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총람>, 468쪽. 장화교회 원로 전도사 김영태(김종립의 아들)의 증언에 의하면, 처음엔 장화리에 성공회가 먼저 들어왔는데 교인들이 나무를 해다가 예배당을 건축하였다고 한다. 김영태 전도사의 증언, 1994. 6. 12.

21) 고창교회(현 화도시온교회) 설립 연도는 분명치 않다. 화도시온교회의 박철주 목사와 김중규 장로는 내리(소루지)교회(1903년 창립)와 문산교회(1906년 창립) 창립 연도를 기준하여 1905년을 교회 창립 연도로 고증하고 있으나 객관적 문서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거리상으로 고창이 내리에서 가장 가깝다는 점에서 문산교회보다 먼저 창설 되었다 할 수 있겠으나, 오히려 거리가 먼 곳 교인들이 교회 분립을 먼저 할 수 있다는 사실(장로교회가 그런 경우다)에서 문산교회가 먼저 개척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아무튼 고창교회는 장화.문산교회와 거의 같은 무렵에 개척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정확한 연도는 확인하기 어렵다. 화도시온교회 박철주 목사 제공자료, 1994. 5. 20. ; 고창교회는 해방 후 화도중앙교회를 개척했다가(1962년) 다시 두 교회가 통합(1989년)한 후 ‘화도시온교회’로 교회 명칭을 바꾸었다. 柳承동, 앞의 논문, 부록, pp. 4-5.

한학을 배웠던 학자로 갑오경장 이후 신학문에 관심을 갖고 개화에 앞장 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 내리 니산학원 설립에 참여하였다. 1906년에 고창 동쪽 문산(文山)에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문산교회는 내리교회 창설 교인인 윤명운(尹明云)이 이곳에 이주하여 같은 윤씨 집안 윤기동(尹起東)에게 전도함으로써 설립되었다. 이에 대한 <文山教會歷史>²²⁾의 증언이다.²³⁾

"主後 一千九百六年 十月에 江華郡 下道面 內里 松崗村居 尹明云氏가 文山里에 移來하여 本里 尹起東氏를 勸勉하여 예수를 信케되얏고 其外 十六人의 信者를 得케 되얏다. 故로 十二月 七日에 尹起東氏의 草家 八間을 借入하여 教會 禮拜堂으로 定하고 同月 十日에 十字旗를 建樹하고 教會設立禮拜式을 孫承庸 傳道師의 司會로 舉行하다."

내리에서 이사 온 윤명운의 전도로 윤기동을 비롯하여 박춘근(朴春根), 박춘록(朴春祿), 박석조(朴錫祚), 함현라(咸賢羅), 이기창(李基昌) 등 20여 명 교인들이 생겨났으며, 교회 시작 3개월 만에 교인수가 40명으로 늘어나 1907년 3월에는 교인 헌금과 미감리회 해외여성교회 보조로 초가 10칸을 매입하여 독립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²⁴⁾ 그러나 창립초기 급속한 성장을 보이다가 1907년 8월에 교회가 큰 위치에 처하게 되었으니, 바로 정미의병 때 '강화수비병 토벌대'(일본군)가 교회를 핍박하여 교인이던 윤기동이 1908년 3월에 서울로 이주하였고, 1910년에는 윤명운마저 '낙심퇴회'(落心退會)하여 교회를 떠나므로 초기 교인들도 대부분 떠났다.²⁵⁾ 그러나 1908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박기산(朴起山)에 의해 끊어질 위기에 터졌던 교회 역사가 다시 이어졌다.

문산리 유력인사 화농(華農) 박의현(朴義炫)²⁶⁾의 아들인 박기산이 성경을 읽으며 기독교를 연구하던 중 결심하고 교회에 출석함으로써 문산교회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박기산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할 때는 윤기동을 비롯한 초기 교인들이 대부분 떨어져 나간 때였고 얼마후 윤명운마저 교회를 떠나 박기산, 박석조, 박춘록, 박기관 등 소수 교인들이 교회를 유지해 나갔다.

멸절 위기에 처했던 문산교회가 다시 크게 부흥된 것은 1915년 봄 '마리산 부흥회'가 열린 직후였다.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1915년에 장봉도 용암교회와 화

22) 박기천(朴起千) 목사가 1905년대 초까지 기록하였고, 그 후 1965년까지 후임 교역자들이 추가 기록한 교회 연혁이다. 문산교회 뿐 아니라 화도면 교회 상황을 알려주는 귀중한 사료이다.

23) <文山教會歷史>, p. 1.

24) 위의 책, pp. 3-5.

25) 위의 책, p. 3, 8.

26) 박의현(1857. 7. 7.-1936. 7. 22.)은 조선말기 전등사 사고참봉(史庫參奉)을 거쳐 장사랑선 략장군 겸 충훈부도사(將仕郎宣略將軍兼忠勳府都事)를 지냈다.(위의 책, pp. 89-91.) 박의현은 유치정(俞致貞)에게 전도받아 이미 1906년부터 성공회 교인이 되어 1914년에 성공회 '우신부'(F. Wilson)에게 세례를 받았다가 아들(박기산)에게 영향받아 감리교로 교적을 옮겼다. <文山教會生命錄>.

도면 두곡(내리)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부흥운동이 강화 전역으로 확산되며 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 문산교회도 부흥한 것이다. 이에 대한 <文山教會歷史>의 증언이다.²⁷⁾

“主後 一千九百十五年 一月 本區域 杜谷教會 丁允和氏가 長翁岩서 聖神充滿의 恩을 受하고 杜谷教會를 爲始하여 勸士 丁允和氏가 引導中 聖火가 延起하여 各教會가 天父의 恩을 豊蒙하여 復興會를 連續進行하여 聖神受洗者가 昌盛한 中에 本里教會도 四月上旬에 丁允和氏 金陽權氏의 引導로 復興會를 開하고 祈禱하였더니 意外 天父의 恩을 多蒙하여 信徒가 卒然增加하여 禮拜人이 三十餘名에 達하였더라.”

바로 이 무렵 박기산의 아버지 박의현을 비롯하여 박기남(朴起南), 박기봉(朴起鳳), 박기관(朴起官), 박기천(朴起千) 다섯 형제와 박의덕(朴義德), 박춘옥(朴春玉), 박중달(朴仲達) 등 집안 친척들이 믿기 시작하여 문산의 유지 박씨 집안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박의현은 당시 성공회 교인으로 신도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부흥회를 통해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앙적 변화를 목격한 후 감동받아 감리교회로 교적을 옮겨, 훗날 자기 재산의 3분의2를 교회에 헌납하는 모범적인 신앙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문산교회가 부흥하기까지는 오랜 세월 홀로 ‘인내하는 신앙’이 있었다. 그 사정을 <기독신보>가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²⁸⁾

“강화군 하도면 문산동 사는 박기산(朴起山)씨는 교회속장으로 일가의 핏박과 동리의 준축을 인하여 교우가 점점 헛허지고 교회가 업서지게 된지라 박씨가 애통하며 기도하고 十년 동안을 혼자 잊서 기도하며 다 쓰러져가는 회당에서 매주일에 레배하고 성일을 직히더니 하나님께서 도으샤 작년 봄 부흥회에 자기 집안 식구들이 병도 곳침을 엇고 다시 회개하는 열심도 엇어 함께 레배함으로 교우들이 차차 다시 니러나는지라 그 부친은 근본 여러 해 동안에 영국 종교교회 [성공회] 를 밋어 그 교회의 회장으로 시무하였시니 일흠은 사가리아라 그 때에 부흥회를 인하여 자기 집안 식구들이 특별히 은혜받음을 보고 마암이 감동하는 중에 성신의 책망하심을 당하여 진리로 돌아온지라 부자형제가 열심히 밋으매 교우가 三十명에 달하고 금년 봄부터 회당을 다시 건축하기로 시작하여 너름에 증공한지라”

화도면의 동남단에 있는 ‘동막’(東幕)에도 1905년에 교회가 개척되었다. 이곳 교회는 ‘다로지’(선두)교회에 출석하던 주경진이 자기 집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²⁹⁾ 다시 이곳에서 북으로 ‘사기리’(沙器里)에, 서쪽으로

27) 위의 책, pp. 16-17.

28) “박씨인내력”, <基督申報>, 1916.8.2. 한편 이 사실을 <文山教會歷史>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文山教會信者가

29)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총람>, p. 459.

‘흥왕’(興旺)에도 교회가 개척되어 화도면의 교세를 크게 높여 놓았다.

이로써 강화 선교 개척 20년 만에 본도 10개 면 모든 곳에 교회가 설립되는 성과를 이룩했다.

2. 교동.삼산 구역

1899년 홍의에서 권신일이 교동읍에 이주하여 교동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에서 교동 선교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교동 처음 교인들은 교동읍에서 나오기보다는 교동섬 북쪽의 인사리(인현리)와 서남쪽의 서한리, 동쪽의 상룡리에서 나왔다. 즉, 인사리의 황초신.황여신 등 황씨 집안 사람들과 서한리의 방족신.방학신.방합신 등 방씨 집안 사람들 그리고 상룡리의 박성대.박형남 등 박씨 집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교동읍교회 설립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서한리, 인사리 두 지역 교인들은 20리를 걸어 읍내리에 있는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다니다가 1904년에 이르러 각각 독자적인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다. 즉 서한리에서는 서풍신.방족신이 주동이 되고, 인사리에서는 황한신.황복신이 주동이 되어 각각 교회를 설립하였으니 서한리교회와 인사리(혹은 북면)교회가 개척된 것이다.³⁰⁾ 이로써 교동에는 선교 개척 5년 만에 교회가 세 곳으로 늘어났다.

교동에는 교회에서 설립, 운영하는 남.여학교까지 있었으니 1908년에 읍내리에 설립된 동화학교(東化學校)와 동화여학교(東化女學校)가 그것이다. 이중에 동화여학교는 미감리회 해외여성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1920년에 난정리 월굴동에 새로 교사를 짓고 이전하였는데, 이 학교는 읍내에 공립학교가 설립되면서 여학교로 존속하기가 어렵게 되어 결국 1925년에 폐교되고 말았다.³¹⁾ 폐교된 동화여학교의 난정리 교사를 서한리교회에서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서한리 교인들이 난정리로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난정리교회로 불리게 되었다.³²⁾ 그러나 인사리교회는 3.1운동 이후 교세가 격감하여 1922년 경에 결국 폐지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다시 분발하여 8년 만인 1930년에 다시 교회 문을 열었다.³³⁾

그 동안 교동읍교회는 계속 부흥하였는데, 1921년 2월에 열렸던 사경회에 대해 <기독신보>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³⁴⁾

“교동읍내리 예배당에서는二月十七日부터 서한리(西漢里)교회와 연합하여 사경

30) 위의 책, p. 511.

31) <江華史>, p. 611.

32) 이 교회는 일제 말기의 폐쇄되었으며, 해방 후 1949년에 ‘난정교회’로 다시 개척되었다.
<기독교대한국감리회 중부연회총람>, p. 496.

33) <基督教朝鮮監理會 東部.中部.西部聯合年會會錄>, 1931, p. 159.

34) “교동읍사경”, <基督申報>, 1921.3.30.

회를 열고 강사로는 인천 목사 김진호씨, 주문(注文) 목사 종순일(鍾純一)씨와 본교회 목사 방훈씨와 전도사 박성대씨와 전도부인 민대비다씨가 래림하여서 남二반녀一반에 분하여 一주일간 교수하고 검하여 부흥회를 한 결과 새로 믿는 자 三十명이오 十一도 회원이 근 三十인에 달하였스며 사경회원은 남녀 八十명에 달하여 다대한 은혜를 받음으로 영광을 주께 돌린다더라”

교동읍교회는 1933년에 인근 상룡리에 새 예배당을 마련하고 그곳으로 옮겼다. 교동읍교회가 상룡리로 옮겨가는 과정에는 상룡리에 살던 초기 교인 박성대(朴成大).박형남(朴亨南) 부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컸다. 교동읍교회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인사리와 서한리 교인들이 주축을 이루었다가 이들이 각각 자기 마을에 교회를 개척 설립하고 떨어져 나감으로 교동읍교회 교세가 줄어들었다. 이 같은 현상이 1930년대 접어들면서 더욱 심화되자 상룡리(달우물)에서 다니던 박성대.박형남 부자가 자기 소유 임야를 교회부지로 기증하여 교회를 읍내에서 상룡리로 옮겼던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교동읍교회는 다시 부흥하기 시작하여 교동의 모교회(母教會)로서 위치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을 당시 인천지방 감리사였던 이익모 목사는 1934년 연회에서, “喬洞區域은 邑內里 禮拜堂을 헐어 上龍里로 移轉하여 前보다 크고 아름답게 建築하여 多數을 教人얻었으니 참 感謝한 일이며”³⁵⁾라고 보고하였다.

교동 바로 아래 섬인 삼산은 송가, 석모, 매음 세 섬이 연결되어 이루어진 섬으로 이곳에도 일찍이 복음이 들어갔다. 이미 1898년에 홍의 교인 권혜일이 송가에 와서 박형주의 집에 머물면서 삼산으로 왕래하며 전도하여 교인들을 얻었다. 그런데 구체적인 교회 설립은 삼산의 남쪽에 위치한 매음리(煤音里)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이곳에 살던 윤정일(尹定一)이 믿기 시작하여 1899년경 교회를 설립하였는데, 윤정일은 본래 성공회 교인이었다가 감리교로 옮겼으며,³⁶⁾ 그가 ‘일’자 돌림 신앙이 시작된 홍의 출신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매음리에 교회를 설립한 윤정일은 인근 주문, 불음, 검(서검) 등 서부 섬들을 순행하며 전도하여 주문, 삼산 구역 개척 전도자로 활약하였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송가에 교회가 설립된 것은 1900년 이전으로 권혜일에 의해 교회가 개척되었다. 그 후 권신일 지도 아래 김순일.김매리 부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902년에 초가 예배당을 마련하였다.³⁷⁾ 그리고 송가에서 다시 1903년에 ‘항포’(項浦), 1904년에 ‘돛모로’(石毛里)에 각각 교회가 개척³⁸⁾됨으로 삼산에는 송가.석모.항포 등 4개 교회가 설립되었다. 삼산 교회들도 1903-1905년 어간이 크게 부흥했는데, 1905년 케이블의 선교 보고 속에 교동 섬들 교회에 대한 보고가 나온

35) <基督教朝鮮監理教會 東部.中部.西部聯合年會會錄>, 1934, p. 102.

36)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총람>, p. 502. ; 柳承勳, 앞의 논문, 부록 p. 2.

37)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총람>, p. 519.

38) 위의 책, p. 505, 527.

다.³⁹⁾

“교동구역은 교동, 검, 송개 및 다른 여덟 곳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지역 사업은 돌아보기조차 어렵고 위험한데, 거리가 멀어서 한국식 배로 여행하려면 사나운 바람과 파도 때문에 곤욕을 치루곤 합니다. 한 사람 가지고는 이 섬들을 모두 돌아볼 수 없습니다... 이곳 사업은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친절하고 우호적이며, 육지 사람들에 비하면 약간 무식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된 교인이 되는데는 오히려 육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앞서 언급한 섬들의 교회는 지난 1년간 수가 배로 늘었으며 교인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삼산 지역 교회가 크게 부흥한 계기가 1913년에도 또 한 차례 있었다. 매음리 낙가산 서편 기슭에 있는 명찰(名刹) 보문사(普門寺)에 여름 휴가차 왔던 오기선(吳基善), 이익모(李益模), 홍종숙(洪鍾肅), 최성모(崔聖摸) 등 당대 감리교의 지도급 목사들이 부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그리스도회보>의 보도다.⁴⁰⁾

“경기도 강화군 삼산면 보문사에 피서하기 위하여 경성 동대문안교회 목사 오기선 인천항 목사 이익모 경성 종교교당 목사 홍종숙 상도 [상동] 교회 전도사 최성모 4씨가 오셨는데 이 절 위치는 동남북은 산을 의지하고 서는 황해에 림하였는지라 이때는 정히 북풍인데 남으로 오는 음풍이 안개를 니르키는고로 위생에 대단히 불리하더라 이곳에서 동으로 매음도와 북으로 석모도거 데—갓가온 교회인데 八月十日과 二十일 두 주일을 二인식 테번하여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교우의게 통지하였더니 농사에 골몰하여 레배에 참여치 못하던 교우들이 깃뚝으로 참여하여 전에는 二十명에 지나지 못하던니 당일에는 七十여 명에 달한지라 이익모씨가 학생의게 권면하매 맞치 쥬린 자의게 음식을 줌과 목마른 자의게 물을 마시움과 갓하여 이곳 교우의 령훈이 참 새로 거듭나며 길일흔 자가 갈길을 차진 것갓치 깃뚝하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 하였더라”

석모리에는 일찍이 미감리회 여선교회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운영되던 부흥남.여 학교가 있었던 바, 이 학교 학생들까지 참석하여 은혜를 받았던 것이다. 석모리교회는 1915년에 김여택(金麗澤)전도사와 황경애(黃慶愛)부부가 부임하여 교회와 여학교를 진흥시킴으로 교회 틀이 갖추어졌다. 이에 대한 <기독신보>의 보도다.⁴¹⁾

“최감리사 병헌(崔炳憲)씨의 통신을 거한즉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교회가 잔약하여 너학생이 다 환산하여 불과 삼사명에 남지 못하였던 곳인데 전도사 김여택씨를

39) MASK., 1905, p. 65.

40) “피서중 주의 은혜”, <그리스도회보>, 1913.10.20.

41) <基督申報>, 1916.1.12.

파송한지 四삭동안에 녀학도가 다시 모혀서 二十七명에 달함은 그 부인 황경애씨의 열심 교육함이오 남학도도 이십명에 달하는데 교실이 협착하여 다시 마련코저하며 근자에 부흥회를 인하여 은혜받은 자가 八十二명이 되는데 담배를 끄흔 자도 있고 불목하매 온 교회가 날 뿐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풍성히 돌렸다 하였더라”

이 같은 부흥을 바탕으로 1916년에는 삼산의 송가.석모.매음.항포 등 4개 교회에서 예배당 건축을 위한 헌금을 실시하였으며 이시경 권사를 도유사(都有事)로 하여 삼산교회 자금을 추진하였다.⁴²⁾ 그리하여 삼산의 네 곳 교회는 1920년에 이르러 교동구역에서 독립, 삼산구역이 되었다. 구역 독립 후 삼산교회에 부임한 이동응(李東應) 전도사의 노력으로 삼산교회가 크게 부흥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독신보>의 보도다.⁴³⁾

“강화군 삼산구역 四척 교회는 설립된지 근 이십 년에 재작년까지는 교동구역에 부속하여 지내더니 그해부터 본 구역 四척 교회를 분립하여 三산구역이라 명칭한바 그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심히 부진하더니 작년 三월에 리동응 전도사를 파송하여 진력한 결과 본 구역내 일반종교계와 교육계가 병진하는 중 미국부인선교회 주선으로 다년 경영하든 녀학교 교사를 양제로 신축하였는데 三十명에 미만하던 학생이 七十명에 달하였스며 一만 인민이 여자교육의 열이 분발하여 장차 완전한 교육기관의 되갯스며 남자 교육기관으로는 슈천 원의 연금을 모집하여 새로학당을 설립하고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중이며 금년 五월분엔 연백교회 목사 로시좌씨를 청빙하여 부흥회를 행한 결과 새로 밋은 집이 二十여 호 되고 령훈상의 모든 고통하던 병까지 곳침을 받은자 만났스며 새로히 각 교회에서 종을 구하여 레배시간마다 四척에서 종소래 료란하여 三산구역은 진동하다더라”

송가.석모.매음.항포 등 네 곳 교회에서 매주 예배시간에 맞춰 치는 종소리는 삼산 북음화가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한편 삼산 서쪽에 ‘검도’(檢島)로도 불리는 ‘서검도’(西檢島)가 있는데 이곳에도 1905년 이전에 예배당이 섰다.⁴⁴⁾ 이곳 교회는 매음리 교인 윤정일의 전도로 개척되었다. 1905년 케이블의 선교 보고에 윤정일의 활약이 자세하게 나온다.⁴⁵⁾

“몇 교회에서 새 예배당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도에는 우리 매서인인 윤 [정일] 형제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는 선의 불신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

42) <基督申報>, 1916.12.13.

43) <基督申報>, 1921.8.10.

44) 강화에는 조선시대 해상 검문소 역할을 하던 ‘검도’(檢島)가 두 곳 있었는데, 길상면 아래 있는 섬을 ‘동검도’(東檢島)라 하였고, 교동 아래 삼산 서쪽에 있는 섬을 ‘서검도’(西檢島)라 하였다.

45) MASK, 1905, p. 65.

다. 그가 예배당을 지으려 하는데 자기 집안에서 마련한 금액으로 부족하게 되자 불신자 친구들을 찾아가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들 중 상당수가 건축비를 냈는데 어떤 사람은 20달러 규모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도움으로 그는 예배당을 세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검교회’로 불려진 서검리교회는 윤정일 외에 김베드로, 고경식 등이 개척 교인으로 활약하였다. 이로써 교동에서 시작된 강화 서부 섬지역 선교는 교동에 세 곳, 삼산에 네 곳, 서검에 한 곳, 교회가 설립되어 강력한 서부지역 선교 기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3. 주문 구역

삼산 서남쪽으로 크고 작은 섬들이 여럿 있는데 그중에 주문(注文), 아차(阿此), 불음(虜音), 말도(末島) 등 네 곳에 일찍이 교회가 설립되었다. 이 지역 선교의 중심은 주문이었다.

‘진촌’(鎭村), ‘서도’(西島)로도 불리었던 주문에 복음이 처음 들어간 때는 1893년 무렵이었는데, 이에 대한 <注文區域 鎭村教會沿革>⁴⁶⁾의 기록이다.⁴⁷⁾

“一千八百九十三年 視夏 倫敦教神夫 二人(名稱 王大人 葛大人)과 現職梅音里 傳道師 尹定一氏가 本洞에 來島하여 天國福音을 傳播할세 救主의 平生事事蹟을 幻燈으로 分明히 表示하였는데 死中復活과 永生之說은 初聞人士의 疑惑을 惹起하고 太西人의 依冠面目은 初見 老幼에 眼目을 驚駭하였으나 主의 幼年生活로 傳道事蹟이며 十字架悲慘은 眼界의 恍惚하여 當時猶大人의 燻陶한 자와 無異함”

정리하면, 1893년 여름 ‘룬돈교’(영국성공회) 신부 두 명과 삼산면 매음리에 있던 전도사 윤정일이 주문도에 들어와 환등기로 예수 일생을 보여주며 전도했으나 별로 효과를 얻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왕대인은 성공회의 강화 선교를 개척한 워너(L.O. Wanmer ; 王蘭道)를 의미한다.⁴⁸⁾ 1893년이면 워너가 강화 본도 갑곶에 집 한 채를 마련하여 강화 선교를 시작하던 때였으니, 거의 같은 무렵에 주문에도 들러 전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워너와 동행해서 주문을 찾은 ‘매음리 전도사’ 윤정일도 처음엔 성공회교인으로 워너의 통역 겸 안내자로 주문

46) 이 자료는 1952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주문도 진촌교회(현 서도중앙교회) 연혁으로 주문교회뿐 아니라 강화지역교회사를 증언하는 귀중한 사료이다.

47) <注文區域 鎭村教會沿革>, p. 1.

48) 葛大人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분명치 않다. 1893년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던 성공회 선교사 중에는 한문이름이 ‘갈’(葛)로 시작되는 인물은 없다. 다만 1894년 초 강화에 있던 조선수사해방학교 교관으로 와 있던 콜웰(Callwell)을 지칭한 것이었든가, 아니면 1896년 이후 강화에 와서 활동하던 힐러리(F.F.Hillary ; 吉康??)를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을 방문했던 것이다.

그런데 워너 일행의 방문(1893년)으로 곧바로 교인이 생기거나 교회가 설립되지 못하였고, 한동안 주문에는 전도자의 왕래가 없다가 1902년에야 비로소 주문 토착 교인이 생겨나고 교회가 설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정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1902년에 주문에 들어갈 때에는 성공회 교인이 아닌 감리교 전도인이 되어 있었다.⁴⁹⁾

“尹定一氏は 倫敦教에 投身하였다가 主의 擇하심을 蒙하여 本教 道理에 歸하고 獻身天國하여 熱心으로 主의 道理를 傳할세 一千九百二年 五月에 本處에 到着하여 福音眞理를 家諭戶說하고 耳提面命하였는데 其題目은 約翰三章十六節이라 時에 現在 本處傳道師 金根永氏는 數年間 開城에 旅遊하다가 天主教를 信仰하다가 晝夜로 經不絶하드니 尹氏의 熱心傳道를 聖神의 感化를 爲하여 卽地回心向道하니 主文은 前加利利海濱 先生은 今彼得使徒러라.”

즉 성공회에서 감리교로 교적을 옮긴 후,⁵⁰⁾ 감리교 전도인이 되어 1902년 5월에 다시 주문을 방문하여 전도하였는데, 이번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한 결과, 마침내 주문 사람 김근영(金根永)을 교인으로 얻었다. 김근영은 개성을 왕래하면서 천주교 신앙을 갖고 있다가 윤정일의 전도를 받고 개신교(감리교)인이 되었던 것이다. 김근영은 바로 주문교회의 ‘베드로’ [彼得] 가 되었다.⁵¹⁾

“金先生은 道理에 順服한 以後로 自己의 罪過를 痛悔하여 九月 九日에 尹氏를 招待하여 朝鮮以來로 福祿을 祝禱하든 虛神과 國風關係로 累大奉安하든 祠堂을 一切 火焰中에 謝絶하고 獨一上帝와 無二救主를 盡心竭力하여 敬拜讚美하며 同日에 傳道師 權信一氏는 學習禮式을 舉行하였는데 氏는 教會規則을 遵行하여 主日禮拜와 三日祈禱를 自家에서 恪守하며 性이 默重하여 言語動作이 舉中節하고 喜怒哀樂을 不形於色 하니 貧賤이라도 不能移하고 富貴라도 不能淫하고 威武라도 不能屈이라.”

김근영은 1902년 9월 9일에 윤정일을 불러다 자기 집 신주와 사당을 불살랐고 그날 교동에서 내려온 권신일 전도사에게 학습예식을 받았다.⁵²⁾ 그의 집에서 예배가 베풀어졌으니 주문교회의 실질적 창립은 이때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주문교회는 윤정일과 김근영을 주심으로 꾸려져 나갔는데, 보수적이던 주문 사람들은 좀처럼 복음에 마음을 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김근영의 신앙생활을 여러 모로 방해하였다. 그리고 윤정일이 3년 후에 서검도로 옮겨가게 되면서⁵³⁾ 김근영

49) < 鎭村教會沿革>, pp. 1-2.

50) 윤정일이 언제 어디서 감리교로 개종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매음교회(현 삼산교회) 연혁은 1899년에 윤정일이 매음리에서 감리교회로 개척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총람>, p. 502.

51) <注文區域 鎭村教會沿革>, pp. 3-4.

52) 위의 책, 같은 곳.

혼자 고군분투하며 신앙을 지켰다. 그리고 마침내 1904년에 이르러 김근영 가문이 믿기 시작했으며, 망도(望島)로 전도하러 가던 교동 교인 서중신(徐重信)이 주문에 들러 전도하여 점차 교인수가 늘어났다.⁵⁴⁾

그리하여 1905년 2월에 김근영은 옛날 주문진이 설치되었던 곳에 학교를 세웠으니, 후에 영생학교(永生學校)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무렵 주문에도 일진회가 침투하여 친일세력을 규합하려 하였는데, 김근영은 학교를 중심으로 일진회를 규탄하며 국권회복을 강조하였다.⁵⁵⁾ 이러한 민족주의적 신앙에 감동을 받아 비로소 주문 주민들이 교회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믿기 시작하였으니 주문의 영향력있는 양반인 박승형(朴承馨) 일가가 믿게 된 것이다.⁵⁶⁾

“義人の 干求를 喜聞하시고 罪多處에 恩惠를 豊晟케 하시는 救主께서 比處에 當身の 敎會를 設立코저하시 各人에게 聖神保惠師를 遺하야 回心向道케 하심으로 一天九百六年 七月 二十八日에 朴承馨氏가 上帝를 敬畏하야 一門諸族을 引導하고 主의 道理에 歸하니 數月內에 敎人元帥가 數百에 達한지라.”

이로써 주문교회가 확실한 바탕을 얻게 되었다. 김근영은 외로운 투쟁4년 만에 박승형과 그의 두 아들 박두병(朴斗秉), 박순병(朴淳秉)을 비롯한 박씨 일문(一門)이 개종하여 교회에 들어오게 됨으로 교회는 주문에서 더 이상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 호응을 얻게 된 것이다. 강화의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했지만 특히 주문에서는 김근영 등 초기 교인들이 보여준 민족적 신앙 태도가 주민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주문교회 초기 교인으로는 박두병, 박순병 형제가 두드러진 역할을 하였는데 특히 권사로 활약한 박두병과 감역(監役)으로 봉직한 바 있던 박순병⁵⁷⁾은 모범적인 산양 생활로 교인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 구체적인 예로 박두병 권사는 자신에게 빛진 사람의 빛 수천 원을 탕감하여 준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한 <기독신보>의 기록이다.⁵⁸⁾

“경기도 강화군 서도면 주문리 교회 권사 박두병씨는 본시 재산이 좀 있는데 겸하여 쉼을 진실히 밋는고로 범백이 그 동리에 모범이 되어 모든 사람의 칭예를 듯

53) 위의 책, p. 5. 한편 케이블은 1905년 연회보고를 통해 ‘검’(Keum ; 서검도를 지칭)도에서 ‘매서인 윤씨’(Colporteur Yun)가 불신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예배당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 윤정일이 이미 서검도에서도 상당한 선교 효과를 얻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MASK, 1905, p. 65.

54) <注文區域 鎭村敎會沿革>, pp. 5-6.

55) 위의 책 p. 7. 또한 이 무렵이면 강화읍에서 이동회가 개종하고 보창학교를 건립하여 국권회복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때이다. 따라서 김근영도 이동회의 국권회복운동에 호응하여 학교를 설립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56) <注文區域 鎭村敎會沿革>, p. 7.

57) <江華誌>, 第十人章, 77쪽.

58) “박씨의 신앙과 이혼심”, <基督申報>, 1917.5.2.

는터이라 자기 일가 한 사람이 자기에게 수천 원의 빚을 지고 구차하여 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매 그 아들을 불러서 그 빚 갚을 것을 잊지하려나냐 한즉 그 아들의 말이 — 시에 갚을 수는 업으니 돈버는대로 다만 얼마식이라도 갚겠다 하거늘 박씨가 즉시 허락하고 갚을수 잇는대로 감기를 함쓰라하고 도모지 재촉을 하지 아니 하였더라”

아버지 빚 2천 원을 떠 맡은 아들도 교인이었다. 그는 아버지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노동하여 8년 동안 16원을 모았으나 갚아야 할 빚에 비교하면 너무도 적은 액수였다. 그는 아버지 빚을 갚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부담이 되어 고민하던 중 1917년 정월에 박두병 권사 집에서 열린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다.⁵⁹⁾

“금년 [1917] 년 음력 세초에 박씨 집에 여러 교우가 모여 기도와 성경공부를 하는데 그 채무자가 여러 교우를 자기 집으로 청하여 기도하여 주기를 워하거늘 모았던 이들이 깃뚝으로 가서 즐기는 때에 그 채무자가 자기 일가집 빚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아모리 갓흐라고 힘을 쓰고 모흐대 八년간에 겨우 十六원을 모앗스니 수천원을 잊지 갓흐는지 쥬야로 마암이 편치 못하니 채권자 되신 일가 어른을 이일에 대하여 처분하야 달나하거늘 박씨가 졸연한 이 문대에 대하여 무엇이랴 대답할 수 업서 묵묵히 잇슬새 종순일 목사가 성경 마태복음 十八장 二十절⁶⁰⁾을 보고 해석하매 박씨의 사데 순병씨가 그 형님을 대하여 말하기를 오늘날 이 자리에서 이 문대 난 것이 도시 하나님의 뜻인듯하니 형님이 그 돈을 아니 밧을지라도 당장 곤란을 당할터이 아니오니 탕감하여 주셔 밧아야 하겠다 하는 마암과 갓하야겠다. 하는 근심이 서로 잇서 기도하는 때에 항상 거리낌이 업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아람답게 역이시겠다 하매 그 아오 순병씨도 밧을 것 잇는 것 六十여 원을 탕감하며 내 형님은 수천 원도 탕감하엿거던 하물며 몇 푼 아니되는 내것을 밧겟느냐 하고 밧지 아니하기를 성언하매 채무자의 깃버함은 물론이어나와 좌중의 여러 교우들의 깃버하며 찬성함은 과연 한 님으로 다 말하기 어려웠더라”

이 장면은 20년 전에 홍의에서 종순일 자신이 연출했던 장면이었다.⁶¹⁾ 당시 채권자 입장에 있던 그가 지금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화해자로 바뀌었을 뿐이다. 20년 전 자기에게 빚진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빚을 창감해 주며 빚 문서를 불태우고 길상 땅 전도자로 길을 떠났던 것이다. 종순일이 이제 주문도에서 비슷한 경우의 박두병 권가를 만났던 것이다. 종순일은 20년 전 자신을 변화시켰던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박두병에게 들려줌으로써 그도 같은 변화를 받아 자신에게 빚진 친척의 빚 2천 원을 탕감해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박두병의 결단을 유도했던

59) “박씨의 신앙과 애환심”.

60)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35절이 맞다.

61) 이 책의 제6장 “강화 교인들의 처음 신앙”의 주 3)을 참조

동생 박순병도 60원 빛을 탕감해 줌으로써 복음서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박두병.박순병 형제는 주문교회 개척과 더 잡기에 공헌하였을 뿐아니라 주문도 최초 근대 교육기관인 영생(永生)학교 설립도 주도하였다. 1907년 박순병의 아들 박용세(朴容世)가 설립한 영생학교는 남.여학교로 1930년대까지 존속하였다.⁶²⁾ 1929년에 열린 영생학교 창립 23주년 기념식을 <기독신보>가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다.⁶³⁾

“강화군 영생학교는 지금으로부터 二十三년 전 미감리회의 보조를 받아 뎀잉 박사와 박순병씨 알선으로 창립되어 이래 여러 가지 난관을 돌파하고 금일에 니르기까지 만흔 영재를 배양하여 교우는 날노 융성하여가는 중 一월 二十七일에 창립대 二十三주 기념식을 진촌 레배당에서 거행할새 신영대씨 사회 하에 리동을 목사의 기도와 박순병씨의 창립사와 김치준씨의 기념사와 리찬성씨의 연혁담과 모래정씨의 학사보고가 잇슨 후에 박두병씨의 기도로 폐회하였더라”

이처럼 주문교회(진촌교회)가 강력한 선교 기지로 자리잡게 되면서 주문도 다른 지역에도 교회가 개척되었으니, ‘눌러’(訥里)와 ‘대변창’(臺變倉)에 각각 교회가 설립되었다. 주문도 교인들의 열심의 열심은 다른 강화 지방 교인들에 뒤지지 않았으니, 1912년 당시 주문도에 살고 있던 181호 가운데 136호가 예수교인이 되는 놀라운 성과를 얻었다. 이에 대한 <그리스도회보>의 증언이다.⁶⁴⁾

“주문도에는 인가가 모두 一百八十一호인데 예수교 신도의 집이 一百三十八호라 그곳에 교회 三처가 잇는데 그중 늘리교회는 작년(1911년)에 레배당을 새로 건축할새 본래 이것 인민은 고기잡이로 생업을 삼는고로 봄과 녀름이면 남교우는 다해상에 나가 살고 다만 녀교우들만 잇서서 밤마다 나아가 먼 곳에 잇는 석재를 머리로 여다가 축대를 싸고 레배당을 지었는대 축대의 높기는 한 길 반이오 길가는 五十척 가량이오 회당은 八간이니 우리 신자들은 맛당히 주문도 녀교우들의 열성을 본밧알 만하더라”

남자들이 바다에 나가 고기 잡고 있는 동안 여인들이 돌을 머리에 이어 축대를 쌓고 다섯 칸 예배당을 건축했으니, 늘리교회 여성 신도들의 열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만 하다.

대변창교회는 설립 이래 전임 목회자가 없는 상태에서 교인들끼리 교회를 꾸려나가다가 1926년에 주문의 박순병 전도사가 와서 교회를 지도하여 폐쇄직전에 소생

62) <江華誌>, 第十二章, 26쪽, 第十八章, p. 77.

63) <基督申報>, 1929.2.6

64) “녀교우의 열성”, <그리스도회보>, 1912.5.15.

하였다. <기독신보>의 증언이다.⁶⁵⁾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 대변창교회는 설립이래 인도자가 업서 거의 폐지하여 되 었더니 디방회에서 전도사 박순병 로인을 의무로 一年간 파송하여 매췌일 레배를 인도하며 불과 몇 명의 교인으로 근근히 유지하여 오던 바 이번 구역 사경회 때에 사경인도하는 목사 몇 분을 청요하여 一췌야 기도회를 한 결과 교회일 할만한 청년 들이 만히 생기여 지음(1927년)은 교인이 三四십 명씩 모힌다더라”

이로써 주문도의 세 교회, 주문(진촌).눌리.대변창 교회는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주문도 주변의 작은 섬들에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구심점이 되었다.

주문도 서쪽에 있는 불음도와 더욱 서쪽에 있는 ‘끝점’(末島)에도 윤정일이 들어 가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설립되었다. 불음도에서는 윤정일의 전도를 받은 유봉래 가 1902년에 교회를 설립하였으며,⁶⁶⁾ 1909년 이전에 불음도 내동에 또 다른 교회가 개척되었다. 그리고 ‘끝점’에도 노순좌가 주동이 되어 1909년 이전에 교회가 개 척되었다.⁶⁷⁾

불음도와 주문도 사이에 있는 아차도에도 일찍이 교회가 설립되었는데, 아차도에는 1906년에 강화읍 잠두교회에 다니던 김시영이 이곳으로 이주해 오면서 교회가 개척되었다.⁶⁸⁾

65) <基督申報>, 1927.3.23.

66)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총람>, p. 499.

67) <강화.교동 연합계삭회 일기책> ; 柳承勳, 앞의 논문, p. 42.

68) 이 교회는 1966년에 교회 이름을 ‘서광’(西光)으로 바꾸었다. <기독교대한감리회>